

# 무산 3년만에...광주 삼정초 통폐합 재추진

전교생 70명 미니학교

인근 두암·일곡초 분산

광주교육청 이달내 설명회

시민단체·학부모들은 반대

3년 전 추진됐다 무산된 광주 삼정초등학교 통폐합 문제가 또다시 거론되면서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지역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북구 두암동 삼정초등학교를 인근 초등학교와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삼정초는 1~6학년 전교생이 70명에도 못 미치는 1~2학년 규모의 '미니 학교'인데다가 인근에 있는 두암초(447명) 20개 학급)와 일곡초(358명) 19학급)도 전체

학급이 20개 내외인 소규모 학교여서, 이들 3개 학교 사이의 통폐합이 수년 전부터 거론됐다.

삼정초에서 일곡초까지는 큰 길로 950m, 두암초까지는 1km에 달해 초등학교 걸음 걸이로 15분 안팎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시 교육청은 삼정초 학생들을 인근 두암초와 일곡초로 분산 배치하는 방식으로 통폐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통폐합이 완료되면 현재 삼정초 부지에는 수영장과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갖춘 생활 SOC 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삼정초는 이를 위해 지난 3일 학교 통폐합 추진을 알리는 내용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8일 학부모 설명회를 공지했다가 취소한 상태다.

이날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보도자료를 통해 "통폐합 대상을 특정한 뒤 학교구성원들의 동

의를 받아내는 식의 밀어붙이기 행정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선택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반대 이유로 ▲원거리 통학에 따른 사고 위험 ▲통합에 따른 학급 과밀화 ▲안정적 학습환경 침해와 학교 부적응 ▲삼정초에 대한 높은 만족도 ▲작은 학교 살리기의 가치 실현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지역 교육계에서는 교육청이 추진하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규모학교 재구조화 사업의 취지에 대해 무조건 존치해달라는 식의 반대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실상 학년당 학생 수가 10명 정도인 집과 학령 인구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수년 내에 삼정초는 입학 자원이 없어 사실상 폐교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향후 교육 수요가 예측되는 데도 장기적인 차원의 정책보다는 일단 가까운

곳의 학교를 존치하고 보자는 식의 태도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교육 여건 향상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서구 상무중과 치평중 통폐합이 유사한 방식으로 추진됐다가 학부모 투표 끝에 백지화됐고, 국비 45억원도 반납 처리했던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북구의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의 존폐와 같은 중요한 문제는 사회적 논의구를 구성해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며 "이해 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보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삼정초 통폐합을 위한 학부모 설명회를 20일 이후로 연기하고, 학부모와 주민 여론 수렴 뒤 통폐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7월 도입 필름식 자동차번호판 점검 7일 오전 광주 북구청 공영주차장에서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직원들이 새로 도입된 필름식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점검하고 있다. 오는 7월부터 새로운 필름식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전면 도입된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유치원 4월 원비도 환불

온라인 개학 중3·고3

스마트기기 대여 오늘 완료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이 3월에 이어 4월 원비도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휴업 기간 수업료를 환불하는 유치원을 4월 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7일 전국 시도 교육청과 '제6차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 영상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사업'의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사업을 신설한 바 있다. 사립유치원 휴업 기간에 대한 수업료를 학부모들이 내지 않도록 수업료를 환불한 유치원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 발표 당시에는 학교 개학이 4월 6일로 예정돼 있었는데,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서 초·중·고는 온라인으로 개학하고 유치원은 휴업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한 상태다.

교육부는 유치원 휴업 기간이 연장됐으므로 유치원 지원 기간을 당초 5주에서 총 8주로 늘린다고 밝혔다.

국공립유치원 수업료는 각 교육청에서 지원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날 교육부와 교육청은 지역별로 시행하고 있는 스마트기기 대여 제도도 점검했다.

9일 온라인 개학하는 중3·고3 학생에게는 8일까지 스마트기기 대여를 완료할 방침이다. 부산·인천·충남·경기·대구·광주·세종 등 7개 교육청이 전날 기기 대여를 완료했고, 나머지 10개 교육청은 8일 완료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10	달뜨기	19:13
해질	19:00	달지기	06:25

산불조심  
고기압 영향으로 대체로 구름많겠다.

광주	구름많음	6/17	보성	맑음	3/17
목포	구름많음	6/13	순천	구름많음	7/19
여수	맑음	8/17	영광	구름많음	4/13
나주	구름많음	3/16	진도	구름많음	6/14
완도	구름많음	7/17	전주	맑음	3/16
구례	맑음	4/18	군산	맑음	4/13
강진	구름많음	4/18	남원	맑음	2/16
해남	구름많음	5/16	흑산도	구름많음	7/11
장성	구름많음	4/16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남부	완바다	북서~북	0.5~1.0	북서~북	0.5
	면바다(북)	북~북동	0.5~1.5	북~북동	0.5~1.0
	면바다(남)	북~북동	0.5~1.0	북~북동	0.5~1.5
남해 서부	완바다	북서~북	0.5	북서~북	0.5
	면바다(서)	북서~북	0.5~1.5	북서~북	0.5~1.5
	면바다(동)	서~북서	0.5~1.0	서~북서	0.5~1.0

◇ 생활지수

보통	감기	보통
보통	뇌졸중	보통
보통	미세먼지	보통

◇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7:30	02:09
여수	03:03	09:23
	15:21	21:46

◇ 주간 날씨

9(목)	10(금)	11(토)	12(일)	13(월)	14(화)	15(수)
☁	☀	☁	☀	☀	☀	☁
4/17	6/16	5/18	6/18	6/18	6/21	7/21

광주여대,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운영기관 선정

광주여대가 2년 연속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운영기관'에 선정됐다.

고용노동부와 광주시 주관으로 실시되는 이 사업은 신중년(만50~70세)의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해 사회적기업 및 비영리단체 등에서 봉사적 성격의 공익적 사회서비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광주여대는 이 사업에서 참여자 및 참

여기관 모집, 매칭 및 활동지원, 참여기관 관리·감독 등 사업 운영의 전반적 사항을 관리하는 운영기관의 역할을 하게 된다.

평생교육원 박득 원장은 "작년에 운영했던 경험과 노하우로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 및 참여기관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교육청 '온라인 개학' 맞춤형 지원

광주교육청이 9일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개학'에 따른 교육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맞춤형 지원 정책을 잇따라 시행한다.

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초등학교 이 가정에서 온라인학습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학습준비물을 꾸러미 형태로 제공할 예정이다.

공통 물품 대신 학생 개인별 색연필과 도화지, 학습교재 등의 물품으로 구입해 지급하기로 했다. 학습꾸러미 구성은 상

황에 맞게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학생 1인당 3만원의 예산에서 초과분은 시 교육청이 전액 추가 보전키로 했다.

시 교육청은 또 온라인 수업용 정보화 기기 구입을 위해 학급당 20만원씩 지급키로 했다. 학교가 정보화 기기를 구입하면 교육청이 그만큼의 예산을 지급하는 적극 행정을 통해 학교 현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벚나무 250그루, 자동차 한 대 배출 온실가스 상쇄

연간 9.5kg 이산화탄소 흡수

탄소를 흡수한다. 벚나무 25년생 250그루면 자동차 한 대가 1년 동안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2.4t을 상쇄할 수 있다.

국내에는 150만 그루의 벚나무가 조성돼 있어(2018년 입입 통계), 자동차 6000여 대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셈이다. 벚나무는 북반구 온대지역 산지에 주로 생육하며 우리나라, 일본, 중국이 주 분포지다. 국내에는 울벚나무, 왕벚나무 등 28종이 자생한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는 벚나무를 가로수로 활용하기 위해 꽃이 많이 피고, 꽃도 큰 새로운 품종을 개발 중이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함께 이겨냅시다!

#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 제 267회 구례군의회 임시회

일 자 2020 .4. 9. (목)

내 용 구례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례군의회가 코로나19 극복에 앞장서겠습니다!

회의영상은 구례군의회 홈페이지(영상회의록)에서 생방송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councilvod.gurye.go.kr/source/cast/pages/live.html>)